

KOREAN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0211

plus



흔적으로써의 표식

전쟁이후 이탈리아 건축속의 표식, 디자인 그리고 프로젝트

지난 10월 1일 한강의 선유도공원내 한강갤러리에서는 '전쟁이후 이탈리아 건축 속의 표식, 디자인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긴 제목의 전시가 열렸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과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는 '마리오 리돌피의 상세의 시학에서 디자인과 판화들을 통한 마지막 세대의 변형까지'라는 소제목까지도 함께 지닌다.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부분은 193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이탈리아 건축가 마리오 리돌피(Mario Ridolfi)의 작품 사진과 오리지널 디자인 도면, 스케치 등 약 65점이 전시되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그 외 유명 건축가 20여 명의 드로잉과 디자인을 판화로 제작한 작품 140여 점이 전시되었다. 더욱이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성남의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렸던 '이탈리아 패션 50년' 전과 6월 월드컵과 때를 맞추어 축구를 소재로 한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경기

장 스케치'에 이은 이탈리아 문화원의 이탈리아 소개하기의 일편이었다.

이날 작품설명회에 참석했던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의 프란체스코 라우시(Francesco Rausi)대사는 이번 행사가 그동안 이탈리아 문화와 한국 문화와 만남을 실현시킨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자연친화적 환경생태공원인 선유도 공원에서 열릴 수 있었던 것에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인 시모네타 데 펠리치스(Simonetta De Felicis) 씨는 이번 전시에서 중요한 점은 세계대전이후 한 건축가그룹에서 시작한 전후 재건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며 건축가는 건축물의 용적이나 공간을 정할 뿐 아니라 상세히는 난간, 계단핸드레일, 가구에까지, 오늘날에는 시장에 맡겨지는 모든 소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규격화하려 노력한 것

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날 참석한 한국건축가협회 오기수 회장은 건축물로서뿐 아니라 건축학교본을 통해 건축을 총체적으로 완성한 건축가 마리오 리돌피의 건축여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전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이며 이 전시를 통해 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전시되는 작품들을 제공한 A.A.M 건축예술현대갤러리의 소장 후란체스코 모스키니(Francesco Moschini) 씨는 전시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건축문화에서 의미 있었던 두시기에 나타난 디자인을 통해 이탈리아 건축문화의 발전을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였다. 첫 시기는 '건축가의 교본'이 된 마리오 리돌피 같은 네오레알리즘의 거장에 의해 대표되는 1950년대이며, 두 번째 시기는 새로운 거장들에 의해 이탈리아 건축 문화의 디자인을 통해 표현된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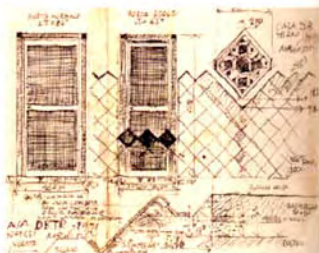
카사 루파텔리(Casa Lupattelli)의 계단층 천장



카사 친타리니(Casa Chitarrini)의 계단 핸드레일



카사 데 보니스(Casa De Bonis)의 계단실



카사 데 보니스(Casa De Bonis) 스케치



전시장 전경



적 작품에 대해 모든 서방세계가 주목하던 1970년대 이후이다. 그 두 시기의 공통점은 경제공황 등으로 힘들어 하던 이탈리아 문화에 건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알도 로시 외 몇 명의 이탈리아 건축가가 참여했던 1973년 15회 트리엔날레는 유럽의 다른 나라나 미국에 이탈리아의 건축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을 상기 시켰다.

전시된 마리오 리돌피의 작업들 중 특히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은 뛰어난 디테일이다. 카사 친타리니(Casa Chitarrini)의 계단 핸드레일이나 카사 루파텔리(Casa Lupatelli)의 계단총 마감 등은 디테일로 경험하게 되는 건축미학이다. 두 번째 부분 전시를 이루고 있는 작품들은 프랑코 푸리니(Franco Purini), 알도 로씨(Aldo Rossi), 코스탄티노 다르디(Costantino Dardi), 파올라 데르콜레(Paola D' Ercole) 등의 건축가와 엔조쿠키(Enzo Cucchi), 주세페 살바토

리(Giuseppe Salvatori) 등 화가들의 판화들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년간 이탈리아 건축계에서는 판화를 이용한 보존을 위한 복제가 성행하여 판화가 1980년대 건축의 특징이 되었다. 전시제목에서 말하는 '표시'라 함은 사인(sign)이 아닌 흔적을 뜻하는 것이다.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전쟁이후의 이탈리아'라는 표식을 찾는다. 전시설명을 마치고 있었던 질문 시간에 누군가가 오늘날 건축학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해 모스키니 교수는 단순히 학생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준다거나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서로 견해를 다르고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시한 후에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교수법이라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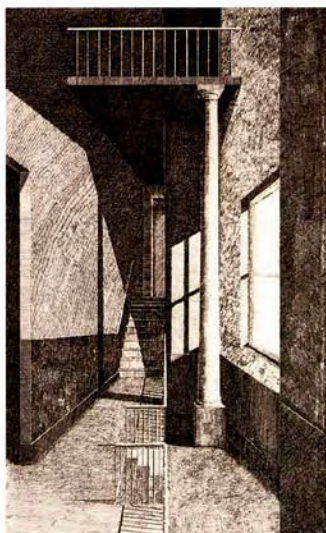
단순히 액자 걸기로 끝나기 쉬웠을 듯한 전시를 지루함 느끼지 않고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전시장의 제한조건들을 오히려 제한조건으로 바꾼 연유이다. 전시장이 작품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공사장에서 쓰이는 비계파이프를 이용하여 전시장을 구성하였다. 그에 맞게 드문 드문 붉은 벽돌도 쌓아 놓음으로 자연스럽게 공사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행사의 기획을 맡았던 이탈리아의 지수민 실장은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며 가장 일반적인 장소이기에 서울에서 첫 전시를 시작했지만 관람자가 서울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의 건축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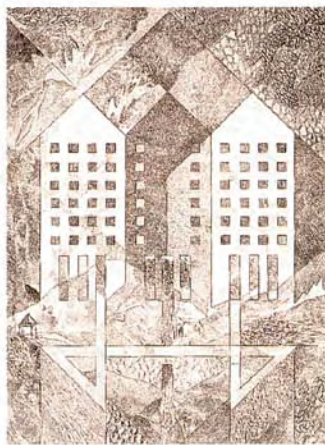
(최순영 기자)



파올로 포르토게시(Paolo Portoghesi), (아모르 로마), 판화



아르두이노 칸타포라(Arduino Cantafora), 《해들너의 집》, 수채화 기법의 동판부식



프랑코 푸리니(Franco Purini), 《자리집은 원칙》, 수채화 기법의 동판부식



알도로시(Aldo Rossi), 《극장의 그림자》, 판화